

송년 파티에서 1,000만 달러 깜짝 보너스 쓴 회사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총 1,000만 달러의 깜짝 보너스를 썼다.

10일 CNN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에 본사를 둔 '세인트 존 부동산' 측은 7일 열린 송년 파티에서 198명의 직원에게 총 1,0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회사 사장인 로렌스 메이크랜츠 (작은 사진)는 "이달 초 우리 회사는 2,000만 평방 피트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쓴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보너스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게는 100달러, 많게는 27만 달러까지 지급됐다. 사측은 이제 막 입사해 아직 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신입직원에게 100달러를 지급했으며, 39년 근속한 정비사 한 명에게 27만 달러가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38년 근속한 사장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급여 및 복리후생 담당 펠리사 알레만은 "빨간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한 뒤 숨이 안 쉬어졌다. 19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마침내 영화를 완성한 것 같다." 라며 좋아했다.

메이크랜츠 사장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다. 모두 비명을 지르고 울고 웃고 껴안고 감정에 북받쳐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연말 보너스로 신용카드 대금,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채무를 청산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송년 파티를 위해 사측은 전국 각지의 8개지사 직원과 손님에게 드는 항공료와 호텔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보너스를 지급하려면 모두가 파티에 참석해야 했



기 때문이다. 메이크랜츠 사장은 "파티에 참석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적은 이메일을 미리 발송했다. 오지 않으면 무언가 큰 일이 날 것만 같은 암시를 썼다." 라고 웃어 보였다. 그는 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직원은 회사 성공의

기반이자 이유이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방법을 고민했는데 성공한 것 같다." 라며 뿌듯해했다.

보너스 지급 후 직원들이 퇴사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우려를 했다는 그는 오히려 사기가 진작된 직원들이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고맙고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벌꿀 오소리의 통쾌한 복수



비단뱀에게 잡혀 목숨을 잃을 뻔한 벌꿀 오소리 한 마리가 역으로 비단뱀을 잡아먹는 상황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0일 '나우뉴스'에 따르면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초베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여행을 하던 로슬린 케르조세(60) 씨는 비단뱀에게 몸이 감겨 목숨을 잃어 가는 벌꿀 오소리(Honey Badger)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데 그때 자갈 한 마리가 다가와 마치 벌꿀 오소리를 도와 주기라도 하듯 비단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비단뱀이 자갈에게로 정신이 가있는 사이 벌꿀 오소리는 비단뱀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복수라도 하듯이 자갈과 함께 비단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벌꿀 오소리가 비단뱀의 머리를 공격하고 자갈은 뱀의 꼬리를 공격했다.

이때 두 번째 자갈이 등장해 벌꿀 오소리를 공격했지만 벌꿀 오소리는 이 자갈을 방어하면서도 마침내 비단뱀의 머리를 물어 죽였다. 오소리의 목숨을 구해준 자갈도 비단뱀을 나누어 먹으려 했지만 벌꿀 오소리는 자갈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 위협하고 비단뱀을 물고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동영상을 촬영한 로슬린은 "사파리 여행중 웅망하기로 유명한 벌꿀 오소리를 보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며 "처음에는 비단뱀에 잡힌 벌꿀 오소리를 보고 조금은 실망했지만 결국 비단뱀에게서 탈출을 해 복수를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고 말했다.

벌꿀 오소리라고도 불리는 라텔(Ratel)은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 오소리과 겹이 없는 동물로 유명하다. 독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 맹독을 가진 독사나 전갈도 잡아 먹는다. 겁이 없는 성격 때문에 사자나 표범 같은 대형 동물에게도 대항하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양말만 신고 강추위 속을 걸은 소년의 사연

5살밖에 안 된 소년이 신발도 신지 않은채 동생을 업고 강추위와 눈바람을 뚫고 1km 떨어진 이웃집까지 걸어가 도움을 요청한 기막힌 사연이 알려졌다.

8일 CNN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북동부의 외딴 마을에 사는 5살 소년은 지난 3일, 얇은 옷과 양말만 신은 채 18개월 된 동생을 등에 업고 집을 나섰다. 당시 기온은 영하 35℃의 강추위였지만 소년은 갓난아기인 동생과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집의 전기가 모두 끊겨 불도 들어오지 않은데다 난방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어린 소년은 동생을 업고 맨발과 다름 없는 양말 차림으로 약 1km를 걸었다. 이웃집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서

는 이미 동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후였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이번 일을 조사한 당국은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면서 "다만 두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빈 집에 방치돼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신고 를 접한 우리는 170여 명이 거주하는 외딴 마을에 출동 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동원해야 했다." 면서 "문제의 여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당시 숲 속에 있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체포된 여성이 아이들의 친어머니인지, 아니면 임시보호자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현재 동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엌 & 화장실 Remodeling 전문 회사

각종 최신 캐비닛, Stone Counter Top 취급합니다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신용/정직/좋은 가격 & 실력있는 회사 !!

CA Lic #:1051205

Pine Tree Construction 주정부 면허회사
필립 안에게 전화 주세요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